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9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29(화) 16:30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9. 29.(화)	담당부서	무역진흥과
담당과장	김대일 과장(044-203-4030)	담 당 자	노정림 사무관(044-203-4035)

성윤모 산업부 장관, 9월 수출 회복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 방문

- 가스감지기 관련 독보적인 수출 선도 중소기업 (주)가스트론 방문 -
- 9월 수출 실적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흔들리지 않는 수출회복세를 위해 우리기업 수출에 총력 지원 의지 표명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9.29일(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가스감지기 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주)가스트론**을 방문하여,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주)가스트론 방문 개요 >

□ 일시 / 장소 : '20.9.29일(화) 16:30 / (주)가스트론 본사 * 군포 첨단산업단지 내 위치
□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무역정책관 등
(주)가스트론 대표이사, 영업이사·연구소장 및 관련 담당자 등

○ **(주)가스트론(대표: 최동진)**은 세계 최초로 다중가스감지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3%를 달성**('19년)하는 등 끝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 2019년 기준, 매출액 856억 원, 수출액 1,020만 불

○ **동남아시아, 중동 등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는 등 안전기기 제조 분야 **국내 최고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 이 날 (주)가스트론을 방문한 성 장관은 **가스 감지 시스템의 개발·공정·설치 과정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성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출회복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가스트론과 같은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해 준 덕분**”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 (주)가스트론은 2019년 '천만 불 수출의 탑'과 '금탑산업훈장' 수상한 바 있음

○ **“당면한 위기**를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수출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성 장관은 **9월 수출 실적**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총력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화웨이 제재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 등 **불안요인들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 10월 중 수출 전과정과 수출지원방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마련**하고,

- **코트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출 기반으로** 거듭나도록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등 **기존 수출기업과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까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노정림 사무관(☎ 044-203-4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부 장관 인사말**

1. 인사 말씀

한가위를 앞두고
수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가스트론**을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스감지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가스트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가스누설 감지기술을 개발해
산업안전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기업**입니다.

*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일정조건 충족 상품
(차세대)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품

2017년에 **'3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작년에는 불과 2년만에 **'천만 불 수출의 탑'**과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트라의 지사화사업, 화상 상담회, 온라인 상품관 등을
적극 활용해 현재까지 **7백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최근 수출동향

가스트론과 같은 기업인들의
고군분투(孤軍奮鬪)의 **노력**과 **활약** 덕분에
어려운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 공식 발표가 있겠지만,
9월 우리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출은 지난 4월,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25%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 된다면,
지난 2월 이후 **7개월만**입니다.

주요 지표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9월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최대실적 달성이 기대됩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총 수출액 400억 불대**'와
'**일평균 수출액 20억 불대**' 동시 진입이 예상됩니다.

업종별로 보아도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의 주력 품목들이
코로나-19 이후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반도체·가전·컴퓨터는
비대면 경제와 홈코노미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의 품목들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5월에 50%이상 감소율을 보였던 **자동차는**
이번 달 들어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 수출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화장품, 생활용품, 계측제어 분석기* 등의 품목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 계측제어 분석기 : 가스트론의 대표 수출품목인 가스탐지기가 포함된 상위 분류 품목이며 규모면에서는 기타 품목중 5위(9.20일 기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스트론과 같은 중소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수출대책 및 향후 계획

이와 같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미·중 갈등 등
불안요인들이 상존해 있어
수출 회복세와 플러스가 앞으로도 계속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외 유명 쇼핑몰 입점, 화상상담, 지사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9.28일 기준으로
약 18.3억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수출 전과정과 수출 지원 방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코트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 수출기업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을 하지 않던 내수기업들도
보다 쉽게 수출을 시작하고 성과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우리 수출생태계에서 수출중소기업들의 수가
10만개를 넘어 15만개, 20만개로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병아리는 껍질을 쪼아 깨고 나오는
힘겨운 고통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란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올 때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쪼아
병아리가 새로운 세계로 더욱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하는
생명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수출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과 같이
즐겁고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